

마동석, 영화계 심없이 질주

장르 가리지 않는 마동석표 액션 기대감 높아
'신과함께-인과연' '챔피언' 등 올해 3편 출연
'동네사람들' '성난황소' 내달에만 2편 개봉



'한국의 드웨인 존슨'으로 불리는 마동석이 11월에만 두 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다음 달 7일 개봉하는 '동네사람들' (임진순 감독)은 여고생이 실종됐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의문의 마을에 새로 부임한 체육 교사 기철(마동석)이 유진(김새론)과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쫓는 스릴러다. 마동석은 복싱 선수 출신의 체육 교사로 변신해 아역 배우 김새론과 '이웃사람' 이후 6년 만에 호흡을 맞춘다.

다음 달 개봉 예정인 또 다른 영화 '성난황소' (김민호 감독)는 한번 성나면 무섭게 돌변하는 동철(마동석)이 납치된 아내 지수(송지효)를 구하기 위해 돌진하는 액션영화다. 마동석이 세운 영화기획사 '팀 고릴라'가 제작에 공동 참여했다.

마동석은 지난해부터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범죄도시'와 11월 '부라더'에 연달아 출연했고, 올해는 '챔피언' (5월), '신과함께-인과연' (8월), '원더풀 고스트' (9월)에 이어 '동네사람들' (11월), '성난황소' (11월)까지 내리 5편에 출연한다.

조연급이 아닌 주연 배우가 1년에 5편이나 다작하는 일은 최근 영화 제작 환경에서는 보기 드물다. 마동석은 영화 '악인전', '나쁜 녀석들: 더 무비' 등에도 캐스팅돼 내년에도 여러 번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마동석은 지난 8일 열린 '동네사람들' 제작보고회에서 "최근 제가 출연한 액션 영화가 몰려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촬영 시기가 다 달랐고 개봉이 우연히 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과 마찬가지로 임진순 감독 역시 제가 무명일 때부터 서로 용기를 주고 힘들 때 위로해준 감독"이라며 "서로에게 위로가 돼줬던 사람이라 꼭 영화를 같이 하고 싶고, 그렇게 찍은 영화들이 한두편씩 개봉이 늦어지면서 물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작은 마동석을 찾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그가 출연한 영화들은 코미디, 판타지, 스릴러, 액션, 범죄물 등으로, 장르는 다양하지만 '마동석표 액션'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영화계 관계자는 "마동석만이 구현할 수 있는 통쾌한 액션에 대해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관객들도 그런 액션을 더 보고 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동석 역시 "정통이나 드웨인 존슨, 제이슨 스테담 같은 배우들은 본인 캐릭터를 그대로 살리는 배우"라며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의 장점은 개성 있고, 독특하고,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의 이미지 소모와 관객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마동석 최근작 가운데 '범죄도시'와 '신과함께-인과연'을 제외하면 나머지 작품들은 흥행성적이 썩 신통치 않은 편이었다.

마동석은 이에 대해 "새로운 장르의 또 다른 캐릭터를 통해 잦은 출연에 따른 단점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모든 걸 다 잘하는 배우가 아닌 만큼, 저만의 장점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 '1987' 영평상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공작' 이성민·'미쓰백' 한지민...감독상 '공작' 윤종빈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이 한국영화평론가협회(이하 평론가)가 주는 올해 제38회 영평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1987'을 최우수 작품상·음악상(김태성)의 두 개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우주연상은 '공작'의 이성민, 여우주연상은 '미쓰백'의 한지민으로 결정됐다. 남우조연상은 '공작'의 주지훈, 여우조연상은 '미쓰백'의 권소현이 선정돼 두 작품이 연기상을 휩쓸었다.

윤종빈 감독은 감독상 수상자로 결정돼 '공작'은 총 3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신인 감독상은 '소공녀'의 전고운 감독이 받게 됐고, 신인여우상은 '박화영'의 김가희, 신인남우상은 '안시성'의 남주혁에게 돌아갔다.

'신과함께-죄와 벌'은 기술상을 받는다. 공로영화인상은 윤정희가 받는다. 1967년 '청춘극장'으로 데뷔한 윤정희는 1960~70년대 한국의 대표 여배우로 활약했고, 2010년에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출연해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다.

올해 마련된 특별상 수상자는 '이태원 살인 사건' (2009), '1급기밀' (2018)을 연출한 고흥기 감독(1957~2016)이 선정됐다.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은 오랜 침묵을 깨고 돌아온 '버닝'의 이창동 감독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11월 13일 오후 6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신지혜 아나운



'공작' 이성민

'미쓰백' 한지민

서와 배우 김지훈의 사회로 열린다.

다음은 전체 수상자 명단.

▲ 최우수작품상: '1987' (우정필름 제작) ▲ 공로영화인상: 윤정희 ▲ 감독상: 윤종빈('공작') ▲ 여우주연상: 한지민('미쓰백') ▲ 남우주연상: 이성민('공작') ▲ 여우조연상: 권소현('미쓰백') ▲ 남우조연상: 주지훈('공작') ▲ 국제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 이창동('버닝') ▲ 각본상: 광택·김태균('안수살인') ▲ 촬영상: 홍경표('버닝') ▲ 음악상: 김태성('1987') ▲ 기술상: 진중현('신과함께-죄와 벌')/시각효과 ▲ 특별상: 고흥기 감독 ▲ 신인 감독상: 전고운('소공녀') ▲ 신인여우상: 김가희('박화영') ▲ 신인남우상: 남주혁('안시성') ▲ 독립영화지원상: 김일란, 이혁상 감독·전고운 감독 ▲ 신인평론상: 조한기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치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재)	10 제32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을(재)	00 최고의 이혼 (재)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재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UHD 스페이스 강원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프리파라 3 55 뽀빠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kbc-jtv 공동제작 히스토리 쇼. 천년의 이야기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컬러스톤 요정의 탄생	15 특집 다큐 인도네시아 지진 참사 현황을 가다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MBC스포츠 2018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한화:넥센>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50 끝까지 사랑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 대 100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습터	00 최고의 이혼	20 MBC 뉴스데스크	0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불발단 당신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2018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특집 다큐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15 마샤와 곰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페루 문명기행 2부 -프레 잉카, 베일을 벗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3:00 다큐 오늘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3:40 엄마를 찾자마 14: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경찰소방대 파이어로보 1~2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똥똥똥 유치원1~2	17:30 띠띠뽀 띠띠뽀(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1~5 19:00 미니특공대 X 19:30 EBS 뉴스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20:40 세계테마기행 <반전매력 독일 2부 알프스가 들려주는 메아리> 21:30 한국기행 <소유기행2 2부 우정호 연가>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조식포함 아파트 23:55 엄마를 찾자마(재) 24:50 한국영화특선 <맨발의 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상대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다. 48년생 비수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상쇄하는 것도 좋다. 60년생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보자. 72년생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진전을 보이는 시기이다. 84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80, 37</p>	<p>42년생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54년생 활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66년생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허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78년생 추구해 왔던 바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90년생 작은 배가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74, 39</p>
<p>37년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49년생 다방면을 고려할 수 있는 현명함이 절실하다. 61년생 고 정 관념의 틀을 깨야 한다. 73년생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라. 85년생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유용하다. 행운의 숫자 : 47, 81</p>	<p>43년생 복잡해질 것이니 체계를 잡자. 55년생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67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79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개의치 말라. 91년생 부수적인 것에 얽매어서 주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2, 67</p>
<p>38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수다. 50년생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다. 62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전도양양하라. 74년생 해묵은 일이 가닥이 잡힌다. 86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 28, 11</p>	<p>44년생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56년생 집착을 버린다면 훨씬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 68년생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80년생 평상시에 아는 바대로만 행하면 그만이다. 92년생 본의 아니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66, 32</p>
<p>39년생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 될 것이다. 51년생 여러 곳에서 허점이 보인다. 63년생 행운을 전해주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리라. 75년생 크게 활용될 때가 있을 것이다 잘 두어라. 87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 된다. 행운의 숫자 : 68, 61</p>	<p>45년생 전혀 의심할 바가 아니니 지체하지 말라. 57년생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유익하다. 69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81년생 흠여져 있는 것은 한데 모아 두는 것이 유용하다. 93년생 평 먹고 말 먹는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6, 51</p>
<p>40년생 장강을 흐르는 물처럼 순조롭다. 52년생 상호적인 작용을 한다. 64년생 단연히 해 왔던 것 속에 문제점이 만연해 있다. 76년생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장애물이 보인다. 88년생 새가 깃을 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7, 23</p>	<p>34년생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46년생 다급한 상황에 놓인다. 58년생 지연되면 손해를 부른다 속전속결 하여야겠다. 70년생 힘은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리라. 82년생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쓸 만 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행운의 숫자 : 53, 93</p>
<p>41년생 바야흐로 이루어지고 있다. 53년생 흥금을 털어 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65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 할 시기이다. 77년생 소모적이라면 한시 바빠 선 회 하라. 89년생 치밀한 계획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조처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86, 06</p>	<p>35년생 지속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년생 비결을 알고 나면 의외로 싱거운 것이다. 59년생 알차고 보람 있겠다. 71년생 처음에는 생소 하더라도 자주 행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다. 83년생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3, 9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연령" ☎010-9790-8237